



WHO의 건강도시운동(Healthy Cities Movement)과 기독교 선교

노영상

건강도시(Healthy Cities) 운동의 시발¹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라 할 수 있다. 산업화된 공장들이 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도시 인구의 팽창이 수반되었으며, 거대 도시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자금의 통계는 세계 60억 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30년 후 세계인구는 80억에 이를 것이며, 그 중 60억 명 정도가 도시거주자가 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이다.²

이 같은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의 증진 및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많은 폐해도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음식의 안전, 주거 문제, 고용, 수질 및 공기의 오염

에 따른 환경 문제, 미래 세대의 건강, 범죄와 폭력과 성 밀매 증가, 약의 남용, 국가적 재앙 및 인재에 대한 취약성, 전염병 확산의 용이성, 사회적 불안정성, 도시 빈곤층의 양산, 출산율의 감소,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정신적 건강의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³

건강도시(Healthy Cities Movement)는 이 같은 도시의 포괄적인 문제를, 모두가 포착하기 쉬운 건강이란 개념을 중심에 놓고 대처하려 한다. 건강도시운동은 1984년 토론토에서 열린, '보건을 넘어서(Beyond Health Care)'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바 있다. 이와 같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주도되어 온 '건강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⁴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1) 본 글은 필자의 책, 『기독교와 생태학』 (서울: 성광문화사, 2008), "제7장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서의 건강도시(Healthy Cities) 운동의 내용을 일부 간추려 보완한 것이다.

2)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London: Spon Press, 2003), 1.

3)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2-3.

4) <http://healthycity.seoul.go.kr/city/hc/hc03.jsp>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창조하고 개선하며,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⁵⁾ 이러한 건강도시 운동은 유럽의 도시들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는 세계에 많은 도시들이 참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서울시,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등이 참여하였으며, 그 후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 2011년 현재 60여 지자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도시의 정의와 구성 요소들(elements)

건강도시(healthy cities)는 도시건강(urban health)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과 보고들은 빈곤, 폭력, 사회적 소외, 공해, 낙후된 주거, 노년과 젊은 층의 불만, 노숙자, 잘못된 국토계획, 참여와 불평등요구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결핍과 같은 증대되는 건강에 대한 도전을 언급한다. 이러한 '건강도시'에의 추구는 건강에 대한 생명 의료적 접근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통진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되어야 한다. 그것은 공중의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들의 상호관련성 가운데에서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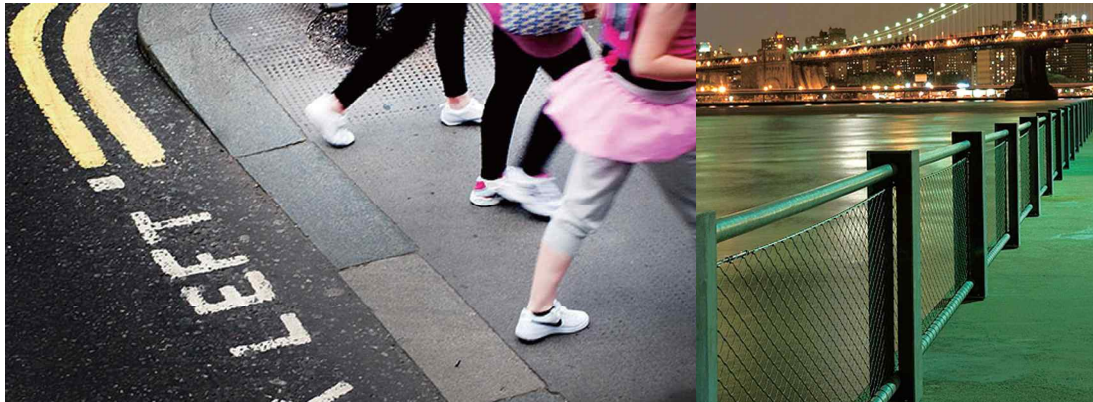
이에 있어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⁶⁾

- 주거환경을 포함한,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 현재 안정적이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태계
-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자원을 절약하는 지역사회
- 생활과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의, 높은 정도의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원활한 사회
-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요구 즉, 음식, 물, 주거, 수입, 안전, 직장 등의 충족
-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다채롭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이 보존되며 다른 집단과 개인간의 협력이 장려되는 사회
- 건강도시의 제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진 도시
-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보장되는 도시
-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

우리는 위에서 건강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건강도시를 만드는 것은 질병을 줄이는 물리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5) 헨콕(Trevor Hancock)은 건강도시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특징들 다음의 12가지로 설명하였다: 질병치료 지향적이기보다 건강 지향적(salutogenically oriented)이고 예방적인,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리와 적합함의 추구, 통전적(holistic), 간학문적,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 결과와 동시 과정도 중시, 역량을 강화하고 복돋음, 정책 상관적, 해석적, 행동 지향적, 지역사회 통체적(Trevor Hancock, "The Healthy City from Concept to Application: Implication for Research,"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eds.,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24,).

6) Evelyn de Leeuw, "Nurturing Healthy Cities: Research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140.



그 운동은 건강도시의 여러 결정요인들을 제시하는 바, 보건 의료 서비스의 활성화, 음식, 주거지, 난방 관계, 안전성 등을 다루는 물리적인 요소(건물과 녹지의 배치, 보행자 도로에 대한 관심, 교통수단의 구성에 대한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자존감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적인 요소,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활동 강화, 건강을 지원하는 사회체계적 요소, 그리고 질병과 건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적 요소, 그리고 개인과 지역사회의 생활의 바탕을 이루는 경제적인 요인, 물과 공기와 토양의 오염 문제 등을 다루는 생태 환경의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⁷ 건강도시의 개념은 지역 주민의 의학적 건강의 수준으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전 영역의 통진적인 결합을 통해 건강증진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건강도시운동과 통진적 샬롬(holistic shalom)

건강도시운동과 연관된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인, 1986년의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은 건강증진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 바 있다.⁸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완전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복리에 이르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그것에 맞설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건강은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생각된다. 건강은 육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자원들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건강부문에 대한 책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복리를 향한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상의 정의에서와 같이 건강도시 운동이 말하는 건강에 대한 개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넘어선다. 그것은 전인적이며 통진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건강과 치유의 통진성은 질병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질병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

7) WHO, "City Planning for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24,7

8) <http://www.who.int/healthpromotion/conferences/previous/ottawa/en/index.html>의 현장 앞부분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대한 설명에서.



는바, 조상과의 관계에서의 유전적인 원인, 자신의 잘못된 생활양식 곧 잘못된 식생활, 과로와 무절제, 운동부족, 열악한 주변과 사회적 환경,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적절하지 못한 노동, 하나님과의 그릇된 관계 등 상당히 다방면의 원인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질병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 상관된 것이 아니며, 나와 하나님, 이웃, 자연과 환경, 자기 자신의 자아 및 유전적 원인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들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건강-질병-치유는 세 가지 모두 통전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일차원적인 것으로 다루어서는 곤란하다.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순수한 정신적인 문제만으로 파악하려 하여서는 안 되며, 그 문제 배경에 있는 몸의 문제와의 연관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반대로 육체적 문제도 단순한 몸의 이상의 문제만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은 많은 경우 정신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는 것으로, 육체적 질병을 야기하였을 정신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전인건강의 개념은 몇 가지의 구성요소들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전인건강에는 육체적 돌봄

에 집중하는 의학적(medical) 건강, 영적인(spiritual) 건강, 심리적인(psychological) 건강, 사회적인(social) 건강, 환경적인(environmental) 건강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는 바, 이에 우리는 건강도시를 지지하는 구성요소들로서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차원,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차원,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차원,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차원, 영적이며 종교적인 차원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이러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관계의 온전함을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샬롬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지만, ‘건강함’이나 ‘완전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윌터스롭은 이 같은 샬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샬롬이 정의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 정의 없이 샬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샬롬은 정의 이상의 어떤 것이다. 샬롬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자아와 이웃 및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한다.”⁹⁾ 이런 의미에서 건강도시 운동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샬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로 질병을 ‘disease’라고 한다. 평안(ease)이 없는 상태가 질병의 상태라는 것이다. 샬롬이 무너진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며, 영과 육이 조화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조화되

며, 사람과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건설하는 곳에, 참 샬롬과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임할 것인 바, 건강도시 운동은 이런 총체적 목적을 향하여 진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도시운동과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이와 같은 건강이란 개념을 선교의 총체적 중심 개념으로 보고, 그 개념에 의거하여 선교의 내용을 조율한 선교방식이 최근 우리에게 제기된 바 있다.¹⁰ 소위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보건의교)라는 개념으로 세계선교 단체인 World Vision 등을 통해 개발된 선교방법론이다.¹¹ Global CHE Network¹²이란 인터넷 사이트에선 이 CH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지역사회보건의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만드는 전략으로, 전 지역사회를 빈곤과 질병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선교방식이다.”

CHE는 이 사회와 도시의 문제를 정의로운 평화로서의 샬롬의 확산으로 압축한다. 빈곤과 질병을 포괄하는 샬롬이 지역사회에서 증거되어야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선교방식이 주장하는 바이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함을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바,

그것의 많은 원인들이 빈곤에 있음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복음을 타계적으로만 생각하여 오늘의 현실의 삶과 이완시킬 수 있으나, 이 CHE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다. 건강이란 인간의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로부터 기독교의 구원개념을 펼쳐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 선교방식의 전망이다. 기독교 선교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며 막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현실 적용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려는 것이 이 선교방식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과 빈곤을 퇴치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참 행복과 평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샬롬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이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CHE의 주장이다. 곧 보수적인 ‘전도’와 진보적인 ‘사회적 행동’ 양면을 이 지역사회보건의교는 통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건강도시운동이 이러한 CHE의 선교방식과 잘 조우하여, 보다 적극적인 선교의 개념이 창출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건강도시운동은 교회 안의 신자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진 선교방식으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적 취지도 잘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기도 한다.



노영상 기독교윤리학자, 서울대를 졸업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대학원 졸업,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 학위를 받았으며 컬럼비아신학교(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연구교수를 지내고,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영성과 윤리』 『경건과 윤리』 『에베와 인간행동』 등이 있으며 “신학사적 조망에 따른 기독교윤리학 방법론에 대한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9) Nicholas Wolterstorff,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Grand Rapids: Eerdmans, 1983), 69.

10) 스텐 롤랜드, 『CHE를 통한 총체적 변화: 전인적 지역사회 개발선교』, 정길용 역 (서울: 에벤에셀, 2009).

11) CHE에 대한 자료들은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출판사인 MARC 출판사의 책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2) <http://chenetwork.org/>